

국제회의 개최에 관하여 한마디

— ICSTI 2008 퍼블릭 컨퍼런스 및 정기총회 개최 후기 —



이 선 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선임연구원
wisdom@kisti.re.kr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이하 KISTI) 주관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 까지 나흘간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세계과학기술 정보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이하 ICSTI)의 '2008 퍼블릭 컨퍼런스 및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미래 지식정보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ICSTI의 임원진을 비롯하여 국내외 정보센터와 도서관의 주요인사, 관련분야 전문가 그리고 사서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제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마치 한 편의 영화나 연극을 제작하여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ICSTI 2008' 이라는 한 편의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사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모이고 완성도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요소들이 상호의존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 오랜 준비 기간, 국제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조화롭게 총 지휘하는 기획력과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제행사를 치러본 입장에서 국제회의나 행사 등을 준비하는 다른 도서관 관계자나 관련기관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ICSTI 2008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한 경험과 생각을 나눌 용기를 내어 보았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행사 개요

세계과학기술정보위원회(ICSTI) 2008 퍼블릭 컨퍼런스 및 정기총회가 시작되는 6월 11일 아침에 행사장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향하는 필자는 일년 반 이상 행사를 준비한 만큼 기대와 염려가 뒤섞여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전시부스는 JST, Elsevier, EBSCO, ProQuest 등 협찬기관들의 준비로 분주했다. 퍼블릭 컨퍼런스 행사장 안에서는 무대장치와 스크린 등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고 사회자와 발표자들이 예행연습을 하고 있었다. 통역사들은 발표자와의 스케줄에 맞추어 미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정주 시의 한 구절처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도 천둥도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다.

행사 주최인 ICSTI의 구텐마이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행사 주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양병태 원장, 김석영 선임연구부장, 그리고 환영사와 기조연설자인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VIP룸에 모였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담소를 즐기다가 개회식장으로 일제히 자리를 옮겼다.

다소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개회식장은 이미 400여개의 좌석이 가득 메워져 있었고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 최희운 ICSTI 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상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유희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구텐마이어 ICSTI 회장의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계속 늘어나서 예상인원을 훌쩍 넘어서서 행사에 대한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번 대회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덴마크,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참석하고 국내에서도 KESLI 참여기관 관계자들을 비롯 도서관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후원기관 담당자 그리고 협찬기관들의 부스 운영으로 행사장은 빈틈이 없었다. 준비한 자료집이 모자랄 만큼 참석자들의 수가 많았다. 대성공이라는 평이 참가자들과

ICSTI 관계자들 입에서 흘러나왔고 이번 대회를 준비한 입장에서 깊은 안도의 한숨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왔다. 행사를 주관한 우리기관의 모든 분들이나 ICSTI 관계자들도 다들 같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번 ICSTI 2008의 공식행사는 크게 세 행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행사는 11일과 12일에 있는 퍼블릭 컨퍼런스로 세계 과학기술정보 기관의 전문가,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장소에서 만나 과학기술정보 분야의 연구 및 개발 동향과 향후 전개될 새로운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방향을 탐색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막식에 이어 민동필 교수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새지평”, 정영미 교수

의 “웹에서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과학기술정보 이용활성화”,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의 보울더스톤의 “웹시대 과학, 기술, 의학분야 연구자를 위한 지식정보전략”, OCLC 회장 로버트 제이 조르단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도서관의 역할” 등의 기초연설이 있었고 3개의 트랙과 스페셜세션을 포함한 6개의 세션에서 22개의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행사는 12일에 거행된 월드와이드사이언스연맹(WorldWideScience Alliance) 협약식으로 미국 에너지부 과학담당 차관보 제프리 셀먼 박사를 비롯하여 한국(KISTI), 미국(DOE, NAL), 영국(BL), 프랑스(INIST-CNRS), 독일(TIB), 일본(JST), 핀란드(VTT) 등 각국 과학기술정보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44개국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서로 공유하는 월드와이드사이언스닷컴(WorldWideScience.com)이 이 협약식을 계기로 활성화 될 전망이다.

세 번째 행사는 13일과 14일에 있던 정기총회(General Assembly)로 10개국 30여명의 ICSTI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향후 과학기술정보 분야에 대한 정책과 의사 결정을 하고자 기술활동통합위원회(TACC), 정보정책위원회(IPC), 월드와이드사이언스 연맹 등의 위원회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각국의 관련 현황과 계획에 관하여 열린 토론을 벌였다. 또한 ICSTI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협의체 발전방안과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위의 공식행사 외에 환영만찬과 MS후원 오찬, 한국을 알리기 위한 관광과 한국문화체험 등의 사교행사도 마련되었다.



①



②

① 월드와이드사이언스연맹(Alliance) 협약식
② 정기총회

유비무환 : 국제회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

하나의 국제행사를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주관하게 된 것은 나에게서는 세상을 보는 시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기회였다.

ICSTI 2008을 잘 치루기 위한 첫 번째 준비단계로 필자는 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2007년 초에 국제회의 전문가 과정(컨벤션 기획사 과정)을 한 학기 동안 수강하였다. 컨벤션 기획업체(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PCO)를 선정하여 국제회의를 준비하더라도 컨벤션 전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어야 행사를 잘 치루어 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업계 실무 최고 권위자들의 강의를 통하여 국제회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국제회의 전문가로 성공하려면 기획력, 외국어 실력, 컴퓨터 사용 능력, 경영마인드, 의사소통 능력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필자는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싶어서 1차와 2차 시험을 치루며 국제회의전문가(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6시간 반 동안 점심시간도 없이 영어와 한글로 기획서를 작성하는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습득한 기획력은 ICSTI 2008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 국제회의(컨벤션)의 개최 수준은 2005년 현재 아시아 2위이고 세계 14위이다. 국제컨벤션협회(ICCA)는 국제회의를 “일회성이 아닌 정기회의로 최소한 참가자 수가 100명이 되어야 하고 최소 4개국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정보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기집회로 전시회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각 기구나 단체에서 개최하는 연차총회를 의미하지만 총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용되며 참가국 수가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자가 10인 이상, 회의기간이 2일 이상인 회의”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의에는 여러 요소들의 조화가 필요하며 모든 프로그램이 작성된 이론적 근거를 충분히 고찰하지 않으면 회의가 실패할 수 있다고 국제회의전문가인 Coemen Finleel이 말하였다. 국제회의를 기획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각의 업무에 대해 담당자를 정하고 업무 진행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하여 행사의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국제회의의 기획에 있어서의 주요 고려사항

- 회의 기본계획 수립 : 회의 목표 결정, 행사일시 및 행사장 선정, 주제선정, 예상 참가자 추정
- 조직위원회 구성, PCO 선정 등
- 학술회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조연설자/좌장/연사 등 선정, 초록/발표자료 수집, 발표자료집 제작
- 홍보 : 신문,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등

- 홍보물 및 행사 관련물 제작 : 홈페이지, 행사 홍보 이메일, 포스터, 리플렛, 초청장, 현수막, 아젠다 타워, 포디움 배너 등 제작
- 등록 : 온라인 등록, 사전 등록, 현장 등록
- 후원 및 협찬 : 업체 모집 및 관리
- 전시 : 전시부스 설치 및 운영
- 의전 : VIP 영접 및 관리 등
- 숙박 : 호텔 및 숙박시설 정보 제공
- 회의장 셋업 및 현장 연출, 사무국 운영
- 사교행사 : 환영리셉션, 오찬, 만찬, 관광, 교통수단 제공
- 예산 편성 및 재무관리 : 행사자금의 조달 방법 논의, 행사비용 기획 및 지급
- 행사 마무리 : 정산, 결과보고서, 감사 이메일 및 편지 발송

백문이 불여일견 : ICSTI 2007 참석

ICSTI는 1953년에 설립되어 48개 과학기술정보 관련 국가기관들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기구로 매해 겨울과 여름에 회의를 개최한다. 여름에 열리는 퍼블릭 컨퍼런스와 총회가 2005년에 러시아의 VINITI, 2006년에 미국의 NLM, 2007년에 프랑스의 INIST-CNRS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ICSTI 퍼블릭 컨퍼런스와 정기총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울대회의 일정과 주제를 발표하고자 2007년 6월 프랑스 낭시의 INIST-CNRS에서 개최된 ICSTI 2007에 참석하였다. 2007년도 정기총회에서는 ICSTI 2008의 시기와 주제를 결정하였다. 한국에서 열린 2006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대회가 열린다는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국제행사가 국위를 선양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ICSTI 사무국은 매년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놓고 있다. ICSTI 2008은 행사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한편 한국의 색채를 가미한 독창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했다.

ICSTI 사무국과의 협력

ICSTI 본부와 행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프로그램을 계획 할 때와 총회에 대한

준비를 할 때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연락했다. 행사 하루 전에 ICSTI 회장과 사무국장이 우리 연구원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행사준비와 진행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며 행사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특히 13일과 14일의 총회 준비를 위하여 ICSTI 본부 사무국장이 미리 도착하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행사준비를 함께 진행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었다.

두 마리 토끼 잡기 : 목표 달성



① 사물놀이 체험
② 순조매 황지사의 별장 성낙원 방문

ICSTI 2008의 첫번째 목표는 회원기관과 외국 참가자들에게 ICSTI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KISTI,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고 좋은 파트너임을 알려 향후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또 두번째 목표는 국내 참가자들에게는 해외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식을 확산시키고 ICSTI를 알리고 국제 협력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ICSTI 임원진과 국외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에 대해서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KISTI가 ICSTI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이번 대회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였다. 국내 참가자들도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 주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성공하였다고 자부한다.

세월과 국경을 넘은 우정 그리고 한국

ICSTI 2008은 세계 과학기술정보 분야 리더들과 휴먼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자 창덕궁과 남산 N타워 방문, 사물놀이 체험을 통해 한국의 현재와 과거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스페셜 이벤트가 있었다. ICSTI 2007 대회 때 만난 참석자 중 미국 NAL 부관장 엘리노어 피어슨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가구박물관 정미숙 관장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2008년도 대회 때 그 친구의 박물관과 정원을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ICSTI 2007에 참석하고 돌아온 즉시 필자는 정미숙 관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방문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리고 올해 정미숙 관장은 엘리노어의 친구 자격으로 ICSTI 멤버들을 박물관과 사적 제 378호로 조선시대 정원인 성낙원(城樂園)에 초대함으로써,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보여주었다.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전통가옥과 가구가 전시되어 있는 한국가구박물관과 전통 정원을 보여주어 외국 참가자들이 격조 높고 우아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행사를 마치고

ICSTI 2008 퍼블릭 컨퍼런스 및 정기총회는 최희운 센터장을 비롯하여 KISTI 전직원들, ICSTI 관계자, 발표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모두들 보이지 않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한편의 연극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커다란 행사였던 만큼 뒷마무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많은 참가자로 부족했던 프로 시딩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감사 이메일을 보내고 사진과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정산처리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등 뒷마무리와 함께 ICSTI 2008은 영원히 역사 속에 남게 되었다.

국제행사 준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일을 조화롭게 잘 처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국제행사라는 결과물에서 느끼는 생생한 생명력, 세계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세상을 움직이는 의견을 나누고 국경을 초월한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서관계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행사 개최 기회를 마련하고, 참여하고 도전해 볼 것을 감히 권하고 싶다. ☺

